



동양화가 정종미 개인전이 4월 12일까지 고려대 박물관 기획전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불화의 도상에 여인의 얼굴을 결합한 '오색보살도 시리즈'가 대중들을 찾아간다.

# 한국 여인의 삶에서 부처를 읽다

정종미 개인전...

고려대 박물관서 4월 12일까지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의 공로가 컸다고 봐요. 그분들이 부처님이지요. 하지만 이런 성과들이 전혀 가치 부여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라도 그분들을 모시고 경배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여성도 부처라는 생각으로 보관도 씌우고 면사포도 씌워 상단에 모시듯 작품을 배치해 보았습니다.”



'수월관음도' 보살의 몸에 염색 한지를 입히고 여인의 얼굴을 그려냈다.

고려불화 도상에 여인의 얼굴 점목 화단에 염색 천 붙여 불화 재현 '오색보살도'로 여성의 삶 찬탄 불교는 동양화 이루는 핵심 사상 여성관·자연사상과 결합해 새로운 작품 창작에 매진하고자

에 어머니가 무척 힘든 삶을 사셨어요. 자식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었던 할머니를 이야기한다.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어릴적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예요.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안부였어요. 해방 되고 한국으로 들어와 길거리에 쓰러진 여인을 집에 모셔와 치료를 해드렸고 이후 저희 집 일을 도우며 사셨죠.”

두 여인의 희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그 희생에 감사하며 그들을 부처님의 경지까지 끌어올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불교는 1700여년 우리 민족을 지탱해 온 종교이기 때문에 동양화에서는 불교적 요소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또한 불교적 세계관은 곧 여성적 세계관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 최대 이슈인데 이 자연은 생명 잉태를 한다는 점에서 여성과 가깝죠. 불교교리도 자연과의 합일 또는 교감을 이야기하죠. 결국 여성을 통해 자연도 만날 수 있고 불교적인 세계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 여성 불교적 세계관이 융합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밖에도 색채의 진수를 느끼게 해주는 '사미인곡' '역사속의 종이부인-황진이'를 비롯해 '오색산수' '종이부인' 'She' 시리즈 등 대표작을 만나볼 수 있다.

정종미 작가는 저서 <우리그림의 색과 칠>을 통해 사라진 전통재료를 새롭게 발굴하고 해석해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사용하는 안료와 전색제 등의 전통재료와 도구들을 보여주는 코너가 마련됐으며 작업과정을 담은 동영상도 공개한다.

정혜숙 기자 bhjhs@hyunbul.com

##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 목표 향해 질주하는 '삶' 멈춰 돌아 볼 때

애니메이션 영화 '박스트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목표의 설정과 성취의 반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목표라는 것이 크건 작건 높건 낮건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때로는 좌절하지만 또다시 도전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중생의 삶인지 모른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생의 삶은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 목표의 방향이 개인의 과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일 때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이다.

애니메이션 영화 박스트롤은 치즈브릿지 마을 지하에 살고 있는 박스트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네모뎀뎀 박스트롤 입고 다니는 귀여운 몬스터, 또 그와 함께 살고 있는 박스를 쓴 인간 소년 에그에 관한 이야기다. 어느날 평화롭게만 지내던 박스트롤들에게 큰 위함이 닥친다. 빨간모자 일당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빨간모자의 목표는 귀족만이 쓸 수 있는 하얀모자를 갖는 것. 그는 이 목표를 위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빨간모자는 박스트롤을 이용한다. 마을의 아이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는 이들이 바로 박스트롤이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다. 박스트롤을 악마로 몰아가면서 빨간모자는 그들을 제거하는 영웅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렇게 빨간모자는 치즈마을의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하얀모자를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빨간모자는 앙굴라마라와 닮아 있다.

앙굴라마라는 사위성 출신으로 복인도 쪽에서 한 스승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지혜롭기는 물론이고 용모까지 수려했으며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스승의 아내가 스승이 집을 비운 사이 앙굴라마라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자 스승의 아내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애니메이션 영화 박스트롤의 빨간 모자는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앙굴라마라의 삶과 닮아 있다.

을 느꼈고 자신의 행동을 남편에게 이를 까봐 두려워졌다.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는 앙굴라마라가 자신을 강제로 욕보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괴심한 마음이 든 스승은 앙굴라마라에게 100명의 사람을 죽여 시체의 손가락 뼈 100개를 목에 걸면 공부를 마칠 수 있다고 말한다.

스승의 말을 무조건 믿은 앙굴라마라는 닥치는대로 사람을 죽이며 손가락 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수행의 마지막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박스트롤 제거에 나선 빨간모자 목적 달성 위해 맹목적 악행 거듭 살인마 앙굴라마라의 삶과 닮아

않았던 것이다. 이제 9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명만이 남았다. 앙굴라마라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희생해 100명을 채우고자 길을 나선다. 그때 부처님이 앙굴라마라 앞에 나서게 된다. 부처님이 걷기 시작하자 앙굴라마라는 부처님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평소처럼 걸었지만 앙굴라마라는 부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는 '제발 걸음을 멈추라'고 소리친다. 부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앙굴라마라여! 나는 이미 멈춘지가 오래 되었다. 멈추지 않은 것은 바로 너다. 나는 번뇌와 고뇌와 경계의 꼬달림을 멈춘 지 오래 되었으나 너는 멈추질 못하고 있구나!"

이 말을 들은 앙굴라마라는 정신이 번

쩍 들었다. 그리고 참회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앙굴라마라의 모습은 하얀모자를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빨간모자의 행보와 닮아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를 향한 질주, 정당성이 결여된 목표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물론 여음이 건면 아침이 오고 비가 온 뒤에 날씨가 맑게 개듯 영화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벌을 받은 자는 벌을 받고 행복을 누릴 자는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명암이 뚜렷한 애니메이션 영화와는 달리 부처님의 제자로 귀의한 앙굴라마라의 행보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살인을 멈추고 비구가 된 그가 탁발을 나서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돌팔매를 가했다. 힘으로 제압할 수 없었지만 그는 돌팔매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했다. '부처님! 저는 아무런 원망도 후회도 미움도 없습니다. 평온합니다.' 자신이 지은 업보를 기꺼이 받는 길을 선택했다. 과오를 뉘우치고 기꺼이 참회한 앙굴라마라의 마지막은 처참했지만 평온했다.

공밀없이 바위를 굴리는 시지프스처럼 중생의 삶은 목표를 향해 오르내림을 반복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로 또다른 업을 쌓기 마련이다.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삶들에게 묻고 싶다. 이제는 멈추어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고. 정혜숙 기자



## 수정기공 및 기공재활사 자격과정 특강



(사람정비 매뉴얼 수정기공)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수정기공 재활사) 민간자격(2014-5765)을 등록하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약물이나 침 뜸 지압, 마사지 등으로 질병을 치료를 고집하는가?

수정기공은 1-3차원에 강압에 준하는 단계가 아닌 거의 힘을 주지 않는 4단계를 지나 과거 설화나 천기누설같이 사랑의 극치인 5단계 재활 단계로 영육간 불편했던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과 희망과 행복을 재할시키는 꿈의 결정판입니다.

- ◆ 강의 일정 : 매월 첫주 일요일 시작, 1개월 4주 단기코스 (일정변경 가능)
◆ 강의 내용 : 기공을 이용한 사람정비 매뉴얼
◆ 접수 인원 : 선착순 8명 이내.
◆ 수강 대상자 : 의료인, 물리치료사, 건강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남녀.

- 1 강사 : 김문기 원장 (박사 / 한국 신지식인)
2 교재 : 환상의 통치체류 ST의 4단계와 5단계 기공법 전수
3 강의 장소 : 수원 성균관대학 전철역 앞
4 접수 및 상담 : 010-3463-7806
5 수강료 : 수정기공 수료 및 자격증 취득과정 전화 상담
6 참고 홈페이지 : soojung99.pe.kr

## 행복이 가득한 효소

세계 최초 꼭꼭 씹어 먹는 효소 「15g의 기적」을 선물 합니다.

병마의 후유증으로 하루하루가 힘드십니까? 몸이 차고 늘 피곤하여 의욕이 없으십니까? 손발이 차고 속이 답답하여 소화가 힘드십니까?

몸속의 독소를 해독 배설시키고, 세포를 재생시켜 보십시오. 무력하고 힘든 하루하루가 살맛이 납니다.

이런분께 권합니다
• 매일 제를 집전하시는 스님
• 100일 기도 1000일 기도수행을 하시는 스님 및 제가불자
• 피로와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
• 성장기 자녀의 건강이 걱정하신 학부모님
• 수험생이나 입시 준비생

- 6년근 홍심과 벌꿀로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36만원
6년근 홍심과 러시아산 녹음을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100만원
6년근 홍심과 유기농 커피를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20만원
6년근 홍심을 진하게 농축 발효한 당치 효소파우더 10g×90호, 60만원

www.행복이가득한효소.com
경북 경산시 옥곡동 80번지 (장산로 1길 5)
1577-0891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문재현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대원문재현선사님으로 이어진 강맥을 한몸에 받으신 법맥과
대원문재현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출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세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찌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